

'99 일본 국제포장기계전(JAPAN PACK '99)

환경·안전위생문제 대응제품 및 관련기기 선보여

東京 有明에 위치한 동경국제전시장(BIG SIGHT)에서 개최된 '99 일본 국제포장기계전은 18개국 328개사가 참가하여 신제품 및 출시사의 주력 제품을 홍보하는 경연장이었다.

지난 달 5일부터 9일까지 닷새 동안 열린 이 전시회는 1964년 처음 개최된 이래 포장기계의 합리화·성력화에 공헌하여 왔으며, 포장기계 산업 및 연관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격년제로 열리고 있다.

올해로 스물 한 번째를 맞았던 '99 일본 국제포장기계전은 최근 일본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는 상황에서 개최되어 일본 정부의 경기호전 발표와 업계 또한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일본 포장기계 산업은 전년도 대비 92.9%인 4,041억엔의 생산실적을 올리는 등 점차 회복되어 가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지난 97년에 열렸던 전시회와 비교하면 수출업체수와 규모 면에서 늘었다고 주최측은 밝히고 있지만 실제 면면을 살펴보면 줄었다는 게 중론이다.

이번 전시회에는 용기포장리사이클법과 HACCP지원법 등 환경과 안전위생 문제에 대응하는 다양한 제품이 출품되었고 포장기계업계와

관련 기기업계는 이와 관련 연구 개발에 노력한 결과물을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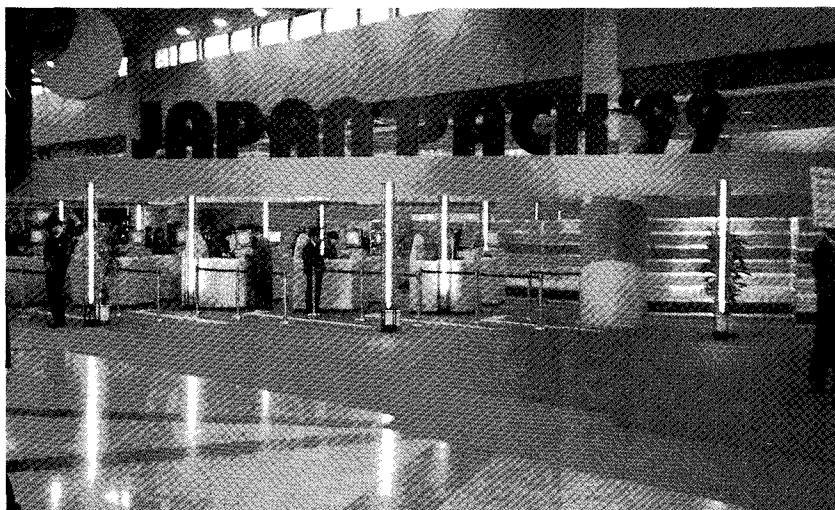
반면 다양한 이벤트 예를 들어 세미나, 개발 사례 등 전시회와 같이 진행됐던 행사들이 거의 없었고 전시장에서 홍보물 제공 등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일본 경제의 불황을 짐작하게 했다. 또다른 이면에는 자동화, 컴퓨터화되어 방문객의 인적 사항을 컴퓨터에 입력시키고 방문객의 요구 자료를 추후에 발송하는 업체가 많았다.

전시 출품물은 수동 기계에서 자동, 로봇까지 다양한 기종이 선보였으며, 복잡한 기능을 가진 제품보다는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하도록 단순 기능을 가진 제품이 많았다는 점이다.

참가 업체의 면면을 살펴보면 일본 업체가 70%이상을 차지하였고 그 외에 미국 유럽 동남아 등지의 꽤 알려진 업체만이 참가해 중소기업들은 아직도 경쟁력있는 제품의 출품,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대부분 업체들이 대형부스(업체당 10부스 이상)로 출품해 이번 전시회는 세계 유명 포장기계 제조업체들의 위상을 과시하는 장인 것처럼 느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크리에타가 충전기를



◀ JAPAN PACK '99가 열린 동경 박사이트 전시장

출품했고 아시아포장기계(대표 박근모)가 고속자동충전포장기(액체·점액체)를 출품해 주목을 받았다. 이 기계는 범용성을 중시하면서도 고속, 안전성에 주안을 두고 있어 참관객들에게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상담 결과를 토대로 일본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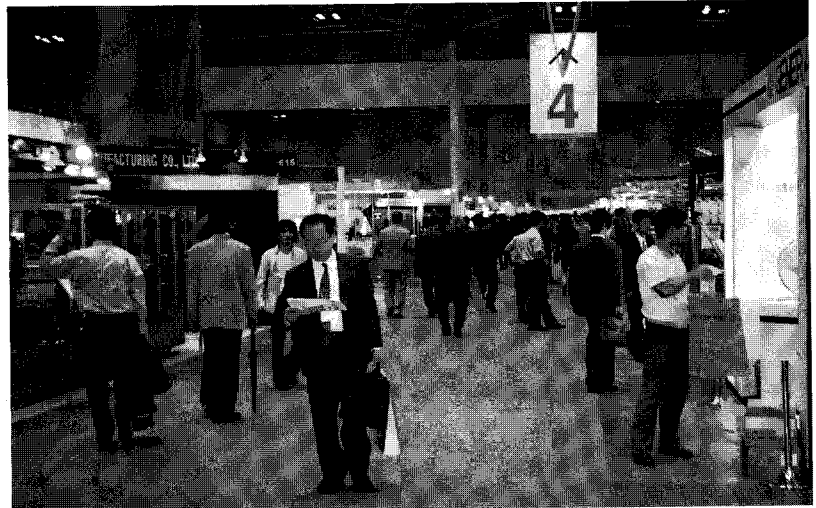
이 외에 경기도 시화공단에 위치한 대덕밴드(대표 한민섭)가 PP자동·반자동·수동 밴드와 PP자동 포장기를 출품해 소기의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전시회에 참가한 업체들은 이전 전시회에서 보여 주었던 다양한 행사와 판촉물 나눠주기보다는 출품 제품을 정확히 알리고 회사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홍보하는 등 알차고 실속 있는 홍보전을 펼쳤다.

전시장에서 찾아 볼 수 있는 특징은 출품부스를 화려하고 높게 인테리어하기 보다는 규정된 높이와 공간을 이용하여 제품의 특성을 살린 배치가 인상적이었으며, 인쇄물의 경우 될 수 있으면 낮은 도수를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 나타내는

디자인이 주를 이루었다.

JAPAN PACK '99의 출품물 중 눈에 띄는 것은 합성수지제 포장재와 합성수지 포장 제품을 가공하는 기계가 많았다는 점이다. 이는 일본, 미국, 유럽 선진국에서는 합성수지 포장재를 규제하기보다 이것들을 리사이클하는 방법에 주안점을 두고 기업에서도 기존 재질을 환경친화적인 것으로 만드는 연구를 한다는 것이다. 도시락 용기나 일반 트레이, 1회용 컵 등도 국내 제품과는 달리 강도가 있어 재사용이 가능하고 분해되는 재질을 적용시키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 디자인도 실용적이고 미려한 것이 많아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게 하는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또다른 전시 내용은 제품의 안전과 위생에 관련한 포장재와 검사 장비의 출품이 많았다는 점이다. 용기의 불량유무 검사장치, 포장제품 내용물 검사장치 등 소비자를 생각하는 장비가 다수 선보여 단순에서 복잡해지는 기능에 대처하는 포장기계와 관련 기기로의 변화되는 것



▶ 다양한 포장기계들이 출품된 전시
장 내부

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제 포장은 단순 개념이 아니라 고기능을 갖추어야 하는 산업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보여 주었고 환경을 입이나 규제로 지키기보다 처음 시작부터 제품 특성에 맞는 재질을 선택, 환경에 유해한 것을 적용하지 않으며 불가피하게 채용했을 경우 유해함을 최소화시키거나 재활용하는 근본적이고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을 느꼈다.

그리고 우리 나라 포장기계 업계도 내수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탈피, 선진 외국과 경쟁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노력하고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야겠다.

JAPAN PACK '99는 포장기계전이라는 특성으로 포장소재 분야의 참가가 적었다. 그럼에도 주류를 이루었던 합성수지 포장재 가공 기계를 통해 포장의 흐름, 소재의 개발에 대한 방향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던 점도 성과의 하나이다. 또한 포장기계와 식품가공기를 함께 전시

하여 단순하게 포장설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가공과 포장 과정을 동시에 볼 수 있어 전반적인 포장의 흐름을 알도록 했다.

전시문화 측면에서도 우리와는 다른 특징이 있었다. 규모는 차치하더라도 호화롭게 치장하기보다는 짜임새있는 공간활용, 주최 측의 준비 및 진행이 매끄러워 보였다. 안내 및 진행 요원의 수가 많음에 의문이 있었는데 모두가 제위치에서 참가업체와 참관객의 편의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고 친절도 우리와는 다른 것이었다.

매번 전시회를 통해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도 선진 외국의 기술과 전시문화 등 앞서고 좋은 것은 받아들여 우리 특성에 맞게 고쳐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포장업계에서는 외국 제품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연구기관, 단체, 업계 모두가 변화돼야 함은 물론이다. ☐